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홍순직, 박덕배,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 (02-3669-40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강연

Executive Summary ..... 1

1. 전세계적 경쟁의 시대 ..... 2

2.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 ..... 5

3. 바람직한 경제 패러다임 ..... 13

■ HRI 경제 지표 ..... 15

##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강연

### □ 전세계적 경쟁의 시대

- 현재는 경쟁이 전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으며, 대학도 전세계 대학을 상대로 경쟁을 벌여나가야 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 대학도 치열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음
- **세계의 대학 개혁** : 전세계 대학의 개혁의 방향은 세세한 전문지식을 가르키기 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폭넓게 가르킨다는 것임
  - 반면, 한국의 경우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의 대부분이 기초보다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 □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

- **투자의 부진** :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 없는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외환 위기 이후 투자 부진에 기인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들여와 곧바로 사업을 벌일 수 있었으나, 한국 경제가 세계 선두권에 가까이 도달한 현재에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낼 수 없음
- **교육의 중요성** :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건전한 상식과 함께,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가진 인력을 키워내야 함
  -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에 의하면 교육은 5가지 성품을 길러내야 하는데, 첫째는 체력, 둘째는 위기극복능력, 셋째는 창의력, 넷째는 적응력,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력이라는 것임
- **창의력과 다양성의 중요성** : 새로운 투자기회를 역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창의성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함.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태도가 필요함
  - 또한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된 조직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언어능력 배양의 중요성** :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며, 세계화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함. 특히 모국어 구사능력이 모든 사고 능력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국어 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함

### □ 바람직한 경제 패러다임

-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패러다임으로 국가중심과 시장주의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해서는 안됨. 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의 폐해도 크지만, 시장을 사회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중요함

#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강연

- 출처 : 그룹윌레동향 보고회의
- 일시 : 2008년 2월 4일
- 연사 :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 1. 전세계적 경쟁의 시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도에 해외 출장 중에 느낀 것들을 말씀 드리고 싶고, 나누어드린 유 인물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외국에 8번 출장을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시니 이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대학 교수로써는 출장을 상당히 많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룰에 따라서 업무일 기준으로 15일상 밖에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8번을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니면서 세계화라고 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가 정말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회사 경영을 하건 학교 경영을 하건 나라 전체를 보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예민한 토픽은 지탱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성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정말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은 작년 11월 초순입니다. 제가 동경대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동경대학 총장 자문 위원단의 멤버입니다. 15명 정도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일본 사람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사람으로 자문 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11월 초순의 금요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본식 도시락 각자한테 다 나누어주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말할 것도 없이 동경대학의 현황도 설명하고 동경대학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소개한 다음, 이 계획을 잘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아이디어를 묻는 회의였습니다. 그렇게 9시간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회의인데, 11시쯤 되어서 갑자기 동경대학 총장이 부총장의 메시지를 받고서는 아주 좋은 뉴스가 있어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뉴스가 뭔가 전부 다 궁금해 했습니다. 그 좋은 뉴스는 동경대학이 영국에 있는 런던 더 타임스 대학 랭킹에서 작년에는 19등이었는데 금년에는 17등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학랭킹이 19등에서 17등에 올라간 걸 중요한 회의에서 큰 뉴스로 전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굵 뉴스가 있다며, 베이징 대학이 15등에서 33등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 자문 위원단에 중국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이야기 나오고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 대학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63등에서 51등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17등으로 됐는데 우리는 51등밖에 안 되어서 미안한지 서울대학이 오랫동안 세계 랭킹에서 저평가 받는 건 다 알고 있다, 서울대학이 베이징 대학보다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베이징 대학은 차이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서울대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학이건 회사건 또 어떤 기구이건 간에 세계적인 서열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 ■ 세계의 대학 개혁

두 번째로 작년 이맘때 제가 런던에 갔을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당 정부와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는 싱크탱크인 DEMOS라는 곳에서 한국, 중국, 인도에서의 R&D 비교라고 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국제 컨퍼런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중국, 인도에서의 R&D에 관한 필드 스터디 보고 미팅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사람들을 5명씩 보내서 2년 동안 필드 스터디 시킨 다음에 각국 보고서를 하나씩 쓰고 종합 보고서를 써서 네 개의 책을 내면서 3국에서의 R&D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관한 보고서에 제가 코멘트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한국 보고서에 대한 논평도 하게 됐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본 한국에서의 R&D는 좋은 점도 있지만 비판할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BK21등 국가에서 연구비를 많이 내고 대기업들도 연구비를 많이 내서 앞날이 굉장히 밝지만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BK21 같은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하는 걸 보면 연구 제목부터 정부가 정해주고 3개월, 6개월, 1년마다 평가를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연구비 끊어버리는 식으로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인도에 비해서 비교적 창의성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단기적으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장래가 밝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다음 강조하는 것이 기초연구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연구라는 건 다 응용 연구라 안타깝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는 영국이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컸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모임에 40명 정도의 캠브리지 대학 이과 교수들이 왔는데 한 20명 정도의 시니어 교수들은 왜 이렇게 법석이나 영국에 일 났냐 라는 식이고, 20명 정도의 주니어 교수들은 영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한국에도 뒤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한국은 응용만 주로 하지 기초 연구를 안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70년대의 미국 대학 개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대대적인 대학 개혁이 있었습니다. 50년대의 스포트니크 발사도 있었고, 60년대에는 월남전 반대 데모가 격렬해서 대학의 존립, 특히 사립 대학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들을 해서 대학개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대학개혁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에서 기초로, 좁게 가르치기 보다 넓게 가르치자는 것이 대학교육의 모토였었고 메이저 대학은 다 굉장한 개혁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신 경제를 미국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종래에는 미시적으로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경제학에서 가르쳤고 거시적으로는 높은 성장과 물가 안정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가르쳤는데, 1990년대의 호황을 보고서는 수확 체감보다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고도성장과 물가 안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1990년대 미국 경제가 누린 호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1970년대의 대학 개혁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학 개혁 시기에 배웠던 학생들이 90년대 미국 경제의 주역이 되어서 호황을 가지고 왔다는 경험적 연구 보고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2.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가 작년에 미국과 일본에 서너 번 간 미팅은 주제가 모두가 sustainability입니다. 지속 가능성 또는 지탱 가능성인데 sustainability를 지속가능성이라고 번역했더니 어떤 국문학자가 지탱 가능성이 더 맞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극의 지속, 지탱 가능성, 남극의 지탱 가능성, 한국의 현재 기후의 지탱 가능성을 비롯해서 거기 나온 굉장히 많은 토픽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의 지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작년도 노벨 평화상을 열고어가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작년에 봤더니 하나는 경쟁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또 하나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와 또 하나는 최근에 세계의 경제 사정을 볼 때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겠느냐의 두 가지입니다.

## ■ 투자의 부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정말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40여 년 동안 성장한 걸 단순 산술 합으로 하면 350% 정도 되는데 이건 불란서나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으려고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성장한 것을 전부 합해봐야 300% 밖에 안 되는 걸 보면 굉장한 실적이고 앞으로 세계경제사에 크게 기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냐 라는 건데 계속 성장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고 미래에 성장하려면 앞으로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배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걸리는 것이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투자가 너무 부진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작년 초까지 굉장히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냥 경제학 교과서 식으로 얘기하면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이 정책 내일은 저 정책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투자를 안 하려 든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케인스가 이야기했듯이 투자는 야성적 충동의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animal spirit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animal spirit을 중히 여기는 풍토가 양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역시 투자들을 안 하는 것, 특히 대기업이 영업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로 좋고 또 현금도 많은데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마땅한 투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기술을 빌려다가 돈을 투자하면 수지 맞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 경제가 발전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산업이 세계 선두 그룹에 있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가지고 투자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술을 갖고 투자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면 이에 비해서 첨단 기술 개발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서 투자가 안 된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 교육의 중요성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교육은 부실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실하다는 건 인적, 물적 자원, 공적 자원, 사적 자원 다 집어넣었는데 훌륭한 인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는 무엇이나 그러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또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제 이야기가 아니라 1690년대에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이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급변하는 사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제나 급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에게 1690년대에 세상이 이렇게 급변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정말로 급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과학기술의 점프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쳐져 가지고 1690년대, 1710년대까지 양극화 현상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존 로크가 급변하는 사회라고 말한 건 그럴 듯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과학자인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어른들은 애들을 버릇없고 예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경제학과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해서 요새 새로 들어온 경제학과 교수들 참 예의 없더라 하니까,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주니어 교수일 때는 시니어 교수님들이 오늘 저녁 약속 없느냐 하면 약속이 있어도 없다고 하고 따라갔는데 요새는 일주일 후에 저녁 먹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 요새 애들 참 재미 없더라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과학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할 것 없다 20년 전에 아마 조순 이현재 선생님 께서 널 똑같이 봤을 것이다. 요새 애들 버릇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보고 이집트 가 봤느냐고 물어봤습

니다. 그래서 못 갔다고 했더니 거기에 가면 피라미드에 요새 애들 참 버릇없다고 써 있는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시니어가 보면 주니어 버릇없고 항상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로 사람들이 느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로크가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에서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면 태어나서부터 해야 되고 적어도 늦으면 유치원 또 늦으면 초등학교 또 늦으면 중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려면 다섯 가지 성품을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체력이고 둘째는 위기 극복 능력, 세 번째 창의력, 네 번째는 적응력, 다섯 번째는 지력이 라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지덕체라고 하지만 영국은 철저하게 체덕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20년전에 영국에 가서 1년 정도 살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 1시간 반 썩은 반드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켓을 하고 다음에 수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과목이 셋 밖에 없다고 합니다. 체육과 수학은 논리를 위해서 하고 물론 영어 시간이 통합영어인데 사회 시사 과학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과목들 중 체육을 가장 중시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체력이 중요하다는 건 동감하실 것이고,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다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키도 작고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버티는 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말마다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지 않나 싶은데, 87년 2월에 제가 원저궁에 구경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가 봤습니다. 저는 이튼 칼리지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옆에 있어서 가 봤는데 그때 정말 고색창연한 조그만 캠퍼스인데 운동장에 진흙을 많이 깔아놓고 학생들한테 레슬링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한테 이건 무리가 아니냐 어떻게 추운 데 학생들을 강훈련 시키느냐 했더니, 훌륭한 리더십은 강인한 체력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러면서 19세기에는 이튼 칼리지 출신들이 다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1등 국가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튼 칼리지 출신들이 수상이 안 되면서 1등을 미국한테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일생 살면서 누구든지 위기를 다 느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면 물론이고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 해도 자식들을, 학생들을 가상 위기 또는 진짜 위기에 집어넣어서 극복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람들은 위기 극복 능력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미국 친구들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되면 구제금융 500억 달러 빚을 다 갚게 될 것이고 정상수준으로 갈 것 같다 그 동안 고생해라 하더니, 2년 후에 저희가 500억 달러를 다 갚고 나니까 또 편지가 오기를 지난 번 것 정말 위기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금모으기 운동 등을 보고 쓴 편지인 것 같지만 위기 극복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 ■ 창의력과 다양성의 중요성

세 번째, 창의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별것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항상 새로이 질문하고 새로운 대답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창의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매사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창의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키워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이고 그건 바로 창의력이 발달되어야 투자 대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는 질문으로부터 창의성이 나올텐데 한국인들은 참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질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수님이 내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알아들었어도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친구들이 엉뚱한 질문이라고 홍보면 어떻게 하나? 괜한 질문해서 진도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교수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질문이 고맙습니다. 질문하면 한숨 돌릴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서울대학교 질문 참 안 합니다. 좋게 해석하면 모두 다 완벽주의자들이라 아까말한 쓸

데없는 걱정들을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학 가서도 또 질문을 못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표현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교수님은 저 앞에 나가 있어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를 질문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사대에 계시던 정원식 교수 책을 보니까 유대인과 한국인이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은데 교육에 관해서 보자면 공통점은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국인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에 돌아올 때 묻는 게 오늘 선생님한테 몇 번 대답 했느냐 인데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온 자녀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 몇 개 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문을 한 역사가 유대인과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학계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1940년대 후반만 해도 유대인들은 우수 대학의 대학 교수로 취직을 못 했습니다. 그 유명한 폴 사무엘슨도 하버드에 가고 싶었지만 하버드에서 유대인들을 교수로 안 뽑았기 때문에 MIT에 가 가지고 오늘날 MIT를 미국 경제학의 최고 대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유학시절 구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인광고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력서를 보내야 하는데 제 룸메이트였던 영국 친구가 저한테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펠링을 CHUNG 이라고 쓰고 미국사람들은 미스터 충이라고 하는데 충을 충버그, 충만으로 고쳐야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충만, 충버그 라고 하면 유대인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학교도 그러냐 했더니 우리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프린스턴 대학교에 경제학 교수가 50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유대인 아닌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레고리 차우라고 있었어요. 중국 차우 테스트로 유명한 그레고리 차우 교수는 아마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 했더니 그 친구는 아마 중국계 유대인 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농담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미국 학계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석권하는 건 질문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대학 총장의 졸업 식사를 50개 정도 읽어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키워드가 창의성과 다양성 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대학 총장의 졸업식사에 키워드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꼭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창의성을 위해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느끼고 총장 재임시에도 그걸 응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균형 선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 정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역균형 선발제를 통해서 서울대학 구성원, 서울대학의 학생을 여러 지역에서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취입하자마자 보니까 서울 출신 학생이 42%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25% 인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안되고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제를 해서 지금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 고등학교 1등은 서울 청담 고등학교 1등이나 거의 잠재능력에서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반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멘터링 제도를 채택해서 멘토도 구하고 멘티도 구하고 특별 배려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전체 학점 평균이 4.3만점에 2.95인데 그 학생들의 평균이 3.95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일단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아야 다른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게 창의력과 연결이 되고 첨단 기술과 연결이 되고 결국에 투자 대상 발굴과 투자 활성화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업체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우는 거의 해체될 지경에 간 반면, 삼성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성공했던 이유는 삼성의 인적 구성이 다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우는 서너 개 고등학교 출신이 다이고, 대학도 주로 연대, 서울대가 다인데 비해서 삼성은 보면 정말로 다양하더군요. 제가 만난 삼성 사람들은 부경대학, 제주대학, 서울대학, 고대, 연대,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대학 출신들이 다 있고, 고등학교도 정말 다양한 고등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 ■ 언어능력 배양의 중요성

네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날 때, 또는 새로운 사회에 갔을 때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언어라고 해서 지금 영어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히 하나의 매리트이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어를 잘 하고 나서 영어를 잘하는 건 좋으나 국어도 못하고 영어를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고의 도구이고, 사고가 모여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문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도구를 영어로 할 것이냐 국어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은 역시 국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키모의 눈에 관한 단어가 3, 40개 된다고 하는데 눈에 관한 단어를 몇 개 밖에 모르는 미국인들이 에스키모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력과 관련해서 영어가 강조되는 건 조금도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담함 그 다음에 모험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IMF 위기 맞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부진하고 한국 경제가 축소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건 그때 저쪽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받은 조건이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해라, 기업의 투명성을 재고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구조조정 노력을 10년 해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은 들지만 과거와는 너무 다르게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97년 이전에는 과잉투자, 과잉 시설, 그리고 현금 흐름의 악화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다면 지금은 과소 투자로 인해서 미래의 생산능력 배양이 걱정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는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모험심, 대담함 이런 게 좀 더 키워져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로크가 말하는 것이 지력을 키워라 라는 것인데, 뭘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3R(읽기, 쓰기, 셈하기)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말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읽고 쓰는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아이디어가 있어도 글로 표현을 못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말은 더욱 더 못 하지만 글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가르치라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대학가서는 이제는 전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데 전문 지식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를 가르쳐야 된다. 응용보다는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따라갈 때는 응용으로 충분한데 남하고 같이 선두에 있을 때는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쓴 걸 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은 존 로크가 얘기한 다섯 가지 자질을 가르치고 고등교육 기관에 가서 기초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3. 바람직한 경제 패러다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의 패러다임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국가주도형이나 시장주의형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양분적으로 생각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주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시장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와 시장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감시하는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 것이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1년을 더 봐야 한다고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동안에 시장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시장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 봐야 하겠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

서 새로운 생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 만능 주의로 가지 않았느냐. 이제  
는 과거 케인스가 1920년대, 30년대 이야기 한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 하는 논  
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시장을 규율할 준비 없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시  
장 만능 주의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적 조정장치라고 해서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범 사회적 신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사회 구  
성원들 간에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만들어진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결망입니다.  
함께 믿고 따르는 기준, 규칙 그리고 신뢰와 같은 사회 공동의 무형자산을 말하는  
데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넘 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 시민사  
회 그리고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보면 누가 물건  
을 무겁게 들고 가면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도와달라고 그  
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구 좀 도와주고 싶어도 저  
사람이 의심하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  
안 되어 있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민주  
주의”의 저자인 프랑스인 사상가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반에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잘 되어있어서,  
어떤 마을의 문제들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 좀 더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HRI

---

정리 및 교열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E)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9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5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4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1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1.6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54	6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51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8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2)	(10.5)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7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3.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3